

Page 1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원제: Women's Words)

by Debbie Schmidt

and Leigh Swanson

성경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을 주제로 모이는 열 번의 소그룹 성경공부.

장로교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 (Network of Presbyterian Women in Leadership)

Page 2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원제: Women's Words)은 Becce Bettridge 와 Pamela Bowman 에 의해서 편집되었고, Katie White 이 표지 삽화를 만들었으며, Pamela Bowman 이 전체 디자인을 했다.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장로교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Network of Presbyterian Women in Leadership)의 간행물이다. 모든 저작권 (Copyright© 2004)은 Presbyterians For Renewal 에게 있다. 모든 권리는 보존된다. 평론을 위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한 어떤 모양의 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복제에 대한 허가를 위해서는 다음 주소에 서신으로 알려야 한다.

Presbyterians For Renewal
8134 New LaGrange Road, Suite 227
Louisville, Kentucky 40222-4679

특별히 밝히지 않는 한 모든 성경 구절은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1973, 1978, 1984 by International Bible Society 에서 인용되었다. Zondervan Publishing House 에 승인으로 사용되었다. 모든 권리는 보존된다.

Page 3

성경 말씀의 제자이며, 믿음의 권면자이며, 장로교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의 친구인 Mary Wood 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Page 4 (blank)

Page 5

차례

제 1 과	지식: 하와의 말	11
	창세기 2:15-18; 3:1-13	
제 2 과	승리: 드보라의 말	21
	사사기 5장	
제3과	충성: 룻과 나오미의 말	31
	룻기	
제4과	예언: 한나와 마리아의 말	41

	사무엘상 2:1-10; 누가복음 1:46-56	
제5과	교훈: 지혜의 말	51
	잠언 1:20-33, 8:12-9:6, 9:13-18	
제6과	중재: 아비가일의 말	59
	사무엘상 25:2-42	
제7과	격려: 엘리사벳의 말	67
	누가복음 1:5-45	
제8과	훈련: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	75
	누가복음 10:38-42; 요한복음 12:1-8	
제9과	전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	83
	요한복음 20:1-18	
제10과	부정직함: 삽비라의 말	91
	사도행전 4:32-5:11	
	성경공부 인도자들을 위한 안내서	101
	참고 문헌	105
	평가를 위한 양식	109

Page 6 (blank)

Page 7

어떻게 이 성경공부를 할 것인가?

장로교 예배에서 성경봉독 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예배 인도자와 “하나님께 감사를”이라는 표현으로 기쁨 가운데 화답하는 회중을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귀족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 노인과 젊은이를 만난다. 하나님은 그분의 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사용한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사용한다. 이 성경공부에서는 성경 안에 나타난 열 명의 여성들과 그들의 말(words)을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마태복음 12:34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성경의 여성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말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여성들에 의해서 표현된 말(words)을 공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말 자체만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각 과는 이야기의 배경과 사건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과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을 함께 공부하게 된다.

이 성경공부는 각 과마다 ‘관찰’과 ‘이해와 적용’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관찰’에서는 이야기의 자세한 부분들을 다룬다. 그 당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경공부는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이해와 적용’ 부분은 본문 말씀이 성경공부 참가자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요구하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성경공부는 성경공부 참가자들이 본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그들이 배운 것을 통해 영적으로 자라도록 도울 것이다.

Page 8

이 성경공부는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 지혜서를 제외한 모든 본문 말씀은 여성들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야기체의 본문은 재미있지만 세밀한 성경공부를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좋은 예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저자는 독자에게 이야기의 등장 인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를 항상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들은 성경에서 영적인 원리를 찾을 때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주제별 말씀연구’가 각 과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되었다. ‘주제별 말씀연구’는 각 과의 주제에 대한 성경 전체의 관점을 다른 성경구절과 함께 다루고 있다. 특별히 내용 이해가 모호한 이야기체의 본문을 공부할 때,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식 소그룹 성경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성경공부 인도자는 참가자들이 말씀의 본문에 맞추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어진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경공부 형식에 익숙하지 않은 그룹을 위해서, 인도자는 성경공부의 계획안으로 질문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각 과의 마지막 ‘요약’ 부분은 그 과의 주요 사항들을 열거한다. ‘요약’은 성경공부 참가자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인도자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공부하는 성경의 말씀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어지는 말씀이 서로를 격려하고 깊은 깨달음을 주기를 기도한다. 당신의 마음의 소원이 사도바울의 기도처럼 되기를 원한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6:19)

2004년 3월

Debbie Schmidt 와 Leigh Swanson 으로부터

Page 9

작가들과의 만남

데비 슈미트 (Debbie Schmidt)

데비 슈미트는 미국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어에 위치한 센트럴 장로교회에서 현재 교회의 여성사역 중 하나인 주간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교회의 담임목사의 사모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루이지애나 주의 배턴루지에 위치한 제일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일본에서 10년간을 섬겼다. 또한 뉴올리언스의 인터바서티 (InterVarsity)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일했다. 슈미트 부부는 두 명의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다. 그녀의 여가시간에는 뜨개질과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과 남편과 함께 메릴랜드의 이곳 저곳을 여행한다.

리 스완슨 (Leigh Swanson)

리 스완슨은 현재 플로리다 주의 올랜도에 위치한 리폼드 신학교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에서 신학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텍사스 대학 (University of Texas) 을 졸업하고 텍사스 주의 달라스에 위치한 하이랜드파크 (Highland Park) 장로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고, 테네시 주의 시그널 마운틴에 위치한 시그널 마운틴 (Signal Mountain) 장로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했다. 리는 PFR (Presbyterians For Renewal) 에서 임원으로 일했고, 미국 동남부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행사에서 강사로 섬겼다. 리는 또한 잔 포크 (John E. Polk) 교도소에서 여성 수감자들을 위한 성경공부를 매주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사모이며 또한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이다.

Page 10 (Blank)

Page 11

제1과

지식

하와의 말

창세기 2:15-18 그리고 3:1-13

서론

내가 어렸을 적에 “가십 (Gossip)”이라는 게임을 참 좋아했다. 학교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긴 줄을 서고, 운이 좋은 한 소녀가 그 줄에서 있는 첫 번째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속삭인다. 그 줄에서 있는 아이들은 그 “가십”을 계속해서 다음 아이에게 전한다. 그 비밀이 한 소녀에서 다음 소녀로 넘어갈 때마다, 말이 점점 더 변해간다. 그 줄의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가 가십을 받았을 때 자기가 들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큰소리로 말하게 된다. 그 줄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는 것에서 우리는 말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전해지면서 얼마나 많이 와전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된다.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다른 이들로부터 받게 된다. 우리를 열심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만, 만약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가 왜곡된 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 내 삶에서 성경을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건한 한 여성으로부터 몇 년 동안 귀한 멘토링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은 어느새 내가 직접 성경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을 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바뀌었다. 베틀가 나에게 준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접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다. 그녀는 나에게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을 주었다.

Page 12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는 많은 혜택이 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지혜와 감사가 자란다고 약속하고 있다. 골로새서 3:16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격려하고 있다. 시편 119:11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준다.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몰랐다. 뱀과의 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지혜롭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유혹을 만났을 때 그녀의 무지함으로 인해 불순종을 택했고 죽음에 이르렀다. 하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 리 (Leigh)

창세기 2:15-18 그리고 3:1-13을 읽으시오.

관찰

1.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그 명령을 어긴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2:16-17)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었을 때 하와는 어디에 있었는가?

FYI (For Your Information 의 줄임, 혹은 참고) *만물을 다스리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Page 13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처음 말씀은 인류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제한 안에서 살도록 만드신 것을 보여준다. 자유의지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은 그들의

처음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가 세워놓은 제한 안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2. a.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3:1)

b.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덧붙인 것은 무엇인가? (3:2-3)

FYI 뱀의 질문을 받은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해서 표현했다.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와에게 잘못 전했는지 아니면 하와가 아담이 말한 것을 잘못 이해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없이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 만약 하와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저 나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라는 간단한 질문만 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3. 뱀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까? (3:5)

Page 14

4. 하와가 불순종을 택하게 만든 세 가지 동기는 무엇인가? (3:6)

5.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였으며, 왜 그렇게 했는가? 그녀의 불순종에 대한 변명은 무엇이었는가?

이해와 적용

6.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은 “온 천하를 피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계 12:9). 창세기 3:1을 보라. 사탄은 하와를 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교묘하게 바꾸는가? 뱀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하와는 어떻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7. 에덴 동산은 풍부한 공급이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하와는 불만족스러워 하였다.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뱀은 나중에 불순종으로 자라게 되는 불만족이라는 씨를 그녀에게 심을 수 있었다. 당신의 삶에서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가? 불만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가?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 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심어주고 있는가? 불만족과 싸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Page 15

8. 3절에 있는 하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녀의 지식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배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9. 2:17과 3:4을 비교해 보시오. 사탄은 하와를 꺾기 위해서 어떤 책략을 쓰고 있는가? 오늘날의 문화는 사탄의 이러한 책략에 의해서 어떻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접적인 대항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문화에 대한 예에는 무엇이 있는가?

Page 16

10. 야고보서 4:7-8을 읽으시오. 야고보는 그의 독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가져야 하는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의 세 가지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와의 행동은 야고보의 가르침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하와는 뱀에게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11. 디모데후서 3:16-17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당신을 바르게 한 적이 있는가? 당신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쓰신 적은 언제였는가?

FYI *에베소서 6:11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격려하고 있다. 각각의 갑옷은 우리를 보호한다. 진리의 허리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모두 방어를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공격을 위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엡 6:17).*

Page 17

12. 하와처럼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한 무기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주제별 말씀연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꾸준한 성경공부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기본 바탕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롬 12:2).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아는 것을 쓰신다. 리처드 포스터는 그의 저서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많은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왜 그런가? 포스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학습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2). 좋은 기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며, 황홀경의 체험도 우리를 자유케 하지는 못한다. 진리를 아는 지식 없이는 우리가 자유케 되지 못한다.” (포스터 96페이지)

시편119편은 하나님을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열거하고 있다.

- †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1-2절).
- †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게 한다 (7절).

Page 18

- †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33-40절)과 소망(49절)을 준다.
- †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분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57-62절).
- † 그 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힘(81-88절)과 지혜(97-104절)를 찾게 된다.
- †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고(105절) 행동의 규범을 알려 주시고(113-120절) 영원할 것이다 (89-91, 160절).
- †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공부하고 아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154-159, 166절).

요약

-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
- 불만족은 사탄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불순종하게 유혹하는 계략 중에 하나이다.
-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알아야만 한다.
-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 믿음이 성숙해진다.

Page 19 & 20 (Blank)

Page 21

제2과

승리

드보라의 말

사사기 5장

서론

나는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참 어려웠다. 스스로를 경시하는 것이 성숙의 표시로 여겼던 가정에서 자랐었고,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써 가져야 하는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가르쳐준 것은 감사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데 제한이 되었다.

다른 많은 여성들이 개인적인 성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 말해 주었다. 과거에는 때때로, 여성들이 그들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남성들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너무 똑똑하고, 야망이 크고, 활동적인 여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들어왔다.

겸손은 좋은 것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별로 매력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들을 나누는 것에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Page 22

사사였으며 선지자였던 드보라는 강하고 능력 있는 여성의 한 좋은 예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 승리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끌었다. 그녀 스스로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들이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를 배울 수 있다. – 데비 (Debbie)

관찰

1. 드보라의 노래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 4장을 읽으시오. 이 장에서 배울 수 있는 드보라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녀의 여러 다른 역할들을 통해서 추론해볼 수 있는 드보라의 성품과 능력은 무엇인가?
2.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 사이의 전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요약해 보라.

FYI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패주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4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다. 나중에 드보라의 노래에서 (page 23) 우리는 어떤 일이 그 때에 있었는지 알게 된다. 시스라는 그의 온 군대를 기손 강에 모은다. 그 강은 사실 메마른 여름철에는 말라있는 와디이다. 하지만 겨울과 봄에는 급류로 변하게 된다. 드보라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건기였던 여름에 비를 내리셔서 보통은 말라있던 강이 급류로 변했다고 한다. 보병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무서운 상대인 시스라의

철병거들이 진흙으로 변한 강 속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 격렬하게 돌진해오는 이스라엘 군대로 인해, 결국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은 두 발로 좁은 길을 따라 후퇴해야만 했다.

3. 사사기 5장을 읽으시오. 드보라는 그녀의 노래에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가?

FYI 10절의 흰 나귀를 탄 사람들은 부하거나 권세를 가진 계층을 말하고 있다.

4. 이 전투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6-9절)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 드보라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Page 24

5. 이 전투에서 야엘은 무엇을 했는가?

FYI 겐 사람이었던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시스라가 야엘의 텐트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다가온 위험을 알아채지 못했다. 유목민들의 문화에서 여성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텐트를 치고 걷는 일이었다. 야엘은 망치와 말뚝을 사용하는 아주 익숙했을 것이다. 우리는 야엘이 왜 그러한 행동을 취했는지 알 수 없으나, 시스라가 한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라는 드보라의 예언과 함께 드보라의 노래는 야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영웅적인 행동을 취한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6. 드보라는 시스라의 궁전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시스라의 궁전에 있는 여인들과 드보라와 야엘을 비교해 보라.

FYI 드보라의 묘사에 나타난 보복적인 어조는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드보라의 연민은 그녀의 혈육에 대한 것이지만 다른 여성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시스라의 가정의 여인들은 그렇게 동정을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page 25) 그들은 군대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추측하기를 너무나 많은 노략물을 얻어서 남자들이 그것을 나누는 데 바빠서 지체된다고 생각했다. 남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가지고 올 노략물을 탐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노략물에는 처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은 전쟁 포로들을 동정하기보다 소유물로 인식했다. 그들은 전쟁 포로가 된 처녀들이 병사들로부터 겪어야 하는 학대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다.

이해와 적용

7. 드보라의 노래에서 우리는 그녀에 관한 정보를 조금 더 얻을 수 있다. 이 장과 4장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과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드보라가

가졌던 특별한 재능은 무엇이었는가? 그녀의 경험에서 어떤 것들이 그녀로 하여금 이 전투를 준비하게 하였는가?

8.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Page 26

9. 나의 삶 가운데 과거의 경험이 어떤 특별한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어떤 위기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 준 적이 있는가? 그러한 경험을 간단히 나누어 보자.
10. 이 전투의 승리의 직접적인 이유는 자연 현상 (계절에 맞지 않은 비) 때문이다. 드보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고 있는가?
11.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과하기 쉽다. 하나님은 보통 일반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종종 우연이나 일상적인 일로 이해가 된다. 평범하게 보여지는 사건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손길이 최근 있는가? 그러한 경험을 간단히 나누어 보자.

Page 27

† 영성 작가인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은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은 그분의 사랑의 선물이며, 존재하는 모든 순간은 은혜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루어야 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란 그냥 받지 않는 것이며, 절대 무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과 새로운 경이로움에 끊임없이 깨어나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역자 역) (*Thoughts in Solitude*, published by Abbey of Gethsemani 1956, 1958)

12. 이 과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당신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주제별 말씀연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신약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부르시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롬 12:5, 6; 고전 12:7; 엡 4:7) 이러한 은사들은 가르침, 중보기도, 행정, 예언, 구제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롬 12:7, 8; 고전 12:27-30; 엡 4:11, 12)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page 28) 그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그가 결코 연소하지 않다고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데 누구도 그를 낙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딤후 4:12)

요약

-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분의 사역으로 부르시고 준비시키신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있다.
- 자연스러운 방법과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친구와 가족의 삶 가운데, 그리고 커뮤니티와 나라,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해야 한다.

Pages 29 & 30 (Blank)

Page 31

제3과

충성 (신실함)

나오미와 룯의 말

룯기 1:1-22, 2:1-8, 4:9-17

서론

한 목사님이 가족여행으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여행에서 가장 흥미 있는 사건은 올드 페이스풀(Old Faithful)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헐천을 보는 것이었다. 다른 많은 관광객들과 함께 지정된 장소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족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매 시간마다 175피트의 높이로 치솟는 물줄기가 나온다는 지면의 구멍으로 모든 눈길이 쏠려 있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올드 페이스풀은 매 년, 매 달, 매 시간마다 해 오던 분출을 했다. 3분 동안 그들은 하늘로 치솟는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관광객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그 목사님은 물줄기를 보고 박수를 치는 이상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박수를 친 것은 그 물 자체가 아니라 그 물이 보여주는 충성됨이었다. - 리 (Leigh)

룯기 1:1-22을 읽으시오.

Page 32

FYI 모압은 유다의 동남지역에서부터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다. 초대 사사 통치 때에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노예로 삼았다. (사 3:12-14) 모압

사람들은 그들의 신인 그모시에게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따라서 유대인의 율법은 어떤 모압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했다. (신 23:3)

관찰

1. 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길론은 베들레헬을 떠났는가? (룻 1:1)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룻 1:2)
2. 그들이 모압에서 10년을 보내는 동안,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3-5)
3. 나오미는 왜 모압을 떠나려고 결정했는가? (1:6) 누가 그녀와 함께 했는가?

Page 33

4.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밝음, 사랑스러움”이다. 모압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은 나오미를 바꾸었다. 베들레헬으로 돌아오는 그녀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1:20-21)

룻기 2:1-8을 읽으시오.

FYI 이삭줍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에게 명령을 한 것 중에 하나이다. (레 23:22과 신 24:19 참고) 수확하는 사람들이 받을 지나간 다음, 그 곳에 남은 곡식은 어떤 것이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

5. 2장 1-8절에서 보아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오미와 룻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FYI 2장 20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그들의 “기업을 무를 자” 중에 하나라고 알려준다. 만약 한 남자가 죽어 아내가 과부가 되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그녀는 남편의 소유를 다 잃게 된다. 하지만 그 과부 된 여자가 죽은 남편의 이름을 따라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가까운 친척(기업을 무를 자)이 그 땅을 사고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다.

Page 34

룻기 4:9-17을 읽으시오.

6.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시는가?

이해와 적용

7. 그녀의 남편을 잃어버린 룻은 그녀의 친척들을 떠나 비통함에 처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외국으로 길을 떠났다. 1:16-17에 기록된 룻의 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녀의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8. 오르바와 롯은 모두 선택을 해야 했다. 그들은 모압에서 살면서 이방신을 섬길 수도 있었고, 그들의 과거를 떠나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유일한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었다.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한 롯에게 요구되는 희생은 무엇이였을까? 당신이 이러한 비슷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택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야 했는가?

Page 35

9. 롯기 2:3을 다시 읽으시오. 이 구절은 롯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종종 우연으로 숨겨질 때가 있다. 나중에 2:20에서 나오미는 이 “우연”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당신의 삶 가운데 그 당시에는 우연으로 보였지만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임을 깨달았던 사건을 설명해 보라.
10. 롯과 나오미를 구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값아야 할 몫이 있었다. 우리의 기업무를 자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 나를 구원하기 위한 값을 치르셔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시하는 보아스의 다른 면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Page 36

11. 보아스와 롯은 그들의 아들을 “종 (servant)”이라는 뜻의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오벳은 위대한 왕인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하는 혈통에 이 가족을 택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1:1-16을 읽으시오. 예수님의 족보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롯의 충성됨이 어떻게 기념되었는가? 당신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품이나 특징이 있는가?
12. 보아스는 충성되게 롯을 보필했고, 롯은 충성되게 나오미를 보필했다. 하지만 롯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공급하심의 중심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데이빗 앳킨슨(David Atkinson)은 롯기에 대한 주석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살핌은 종종 “다른 이들의 보살핌을 통해서 인식되고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역자 주, Atkinson, page 8) 당신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그 보살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던 때를 함께 나누어 보자.

Page 37

주제별 말씀연구

충성 (신실함)

모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에 기록한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니 신실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 7:9)라고 그는 말했다. 시편 89:1-8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9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음과 같이 확신하고 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9)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그의 아들도 신실하시다. 예수님은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 요한계시록 19:11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Faithful and True)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충성되기를 원하신다. 갈라디아서 5:22에서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계 2:10)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충성은 섬김의 조건임을 말하고 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안부를 묻는 많은 사람들을 “신실한 일꾼” 혹은 “신실한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 (엡 6:21; 골1:7, 4:7)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Page 38

요약

-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룯이 그녀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셨다.
- 룯이 그녀의 기업을 무를 자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
-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보아스를 통해서 룯과 나오미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게 하셨다. 몇 세대가 지난 뒤, 보아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 주셨다.

Pages 39 & 40 (Blank)

Page 41

제4과

예언

한나와 마리아의 말

사무엘상 2:1-10; 누가복음 1:46-56

서론

1960년대 초, 마셜 맥루언(Marshall McLuhan)이라는 사회학자는 “미디어는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유명한 문구를 만들어냈다. 맥루언의 이 명제는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 자체가 그 정보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다양한 미디어(정보 전달의 매체)를 통해 관계를 맺고 계신다. 하나님은 시와 율법,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시청각 교재까지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도우신다. 강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성육신하신 말씀” 곧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를 축하하며 찬양한다.

하나님은 또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때때로 하나님 택하신 그 사람의 유형이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말해주곤 한다. 이 과에서는 몇 세기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그리고 많은 면에서 다른 두 여인을 볼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러한 다른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의 메시지를 위한 도구로써 왜 이 여인들을 선택하셨는지를 물을 것이다.
- 데비 (Debbie)

Page 42

관찰

1. 배경 이해를 위해서 사무엘상 1장을 읽으시오. 한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녀의 삶 가운데 좋은 점은 무엇이었고,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FYI 자녀는 없지만 사랑을 받았던 아내인 한나는 우리에게 초기 역사의 여성들 가운데 사라와 라헬을 생각나게 한다. 사라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대리모가 되려고 상황을 조작하였다 (창16). 라헬도 또한 대리모로 자녀를 가졌다. 하지만 그녀의 몸종으로부터 얻은 자녀들조차도 그녀의 언니인 레아에 대한 질투를 없앨 수는 없었다. 레아는 많은 자녀를 가졌었기 때문이다. 많은 해가 지난 후, 라헬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가지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어머니들 사이에 있었던 원한과 증오가 자녀들에게 전가되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오랫동안 화해를 할 수가 없었다 (창 30). 한나와 이러한 다른 여인들과의 큰 차이점은 그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2. 한나는 그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FYI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성전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추측한 이유는 당시 모든 기도는 큰 소리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는 조용하고 개인적인 혼하지 않은 기도를 한 것이다. 릴리안 클라인(Lillian Klein)은 한나의 말 없는 기도는 당시 문화에서 “소리 낼 수 없는” 여성들의 위치를 대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의 남편과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를 받은 한나는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 놓았다.

3. 사무엘상 2:1-10을 읽으시오. 한나는 그녀의 아들에 대해서 그녀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은 누구라고 한나는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4. 이제 누가복음 1:26-38을 읽으시오. 본문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면에서 한나와 비슷한가? 또 어떤 면에서 마리아는 한나와 다른가?

FYI 당시 약혼한 여자로서 마리아는 15살이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Page 44

5. 누가복음 1:46-55을 읽으시오.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귀중한 역할에 감사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사람들은 누구인가? 또 누구를 내리치시는가?

이해와 적용

6. 한나와 마리아는 어머니가 되는 개인적인 기쁨을 어떤 말로 표현을 했는가?
7. 한나와 마리아는 그들의 개인적인 기쁨 이상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썼는가?
8. 한나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도왔다.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메시아의 어머니였다. 두 사건에서, (page 45) 하나님은 어떤 특권이나 권세가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이루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달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매개체로써 어떻게 그분의 메시지를 강화하는가?
9. 한나와 마리아는 그들의 노래에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다.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다. 이 사실이 당신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 이 노래가 표현하고 있는 심판에 대한 말들이 어떻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Page 46

10.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와 비교될 수 있는 오늘날의 실례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당신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한나와 마리아가 언급한 부류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부류에 해당하는가? 한나와 마리아의 말들을 우리의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11. 마리아의 노래를 다시 읽으시오. 마리아의 노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12.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소망이 되심을 당신이 속한 커뮤니티에 보여주기 위해서 강림절 혹은 크리스마스 축하의 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 어떻게 이 일을 실행할 것인가?

FYI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대체 선물(Alternative Gift)”을 생각해 보자. 대체 선물이란 선물을 받을 사람의 이름으로 구호단체나 사역 단체에 기부를 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47페이지) PCUSA의 여성 그룹은 말라리아 네트워크 사역(the Malaria Networks project)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있다. (<http://www.pcusa.org/health/international/networks.htm>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나 선교위원회에 교회의 이름으로 후원을 할 것을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 많은 옵션들은 Alternative Gifts International에서 출간한 카탈로그를 참고할 수 있다. (www.altgifts.org) P.O. Box 2267, Lucerne Valley, CA 92356-2267

주제별 말씀연구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들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을 상기시키신다. 그 분은 특별히 스스로를 돌볼 만한 힘이나 자원이 없는 과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위한 조항들이 있다. (신24:19-22) 시편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시35:10, 68:5-6, 146:9)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선한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상기시켜 주시곤 한다. (사58; 미6:6-8)

예수님은 부와 가난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한나와 마리아가 다루었던 주제들을 다루었다. (눅 6:20-26)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문제는

(Page 48)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이었다. (행 4:34-37, 6:1-7) 바울과 야고보도 또한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할 것을 가르쳤다. (딤후전 5:3-16; 약 1:27)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부합은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쳤다. (마 19:16-26) 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마 6:24; 딤후전 6:10)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딤후전 3:3; 히 13:5; 뱀전 5:2)

요약

-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충성된 여성들을 택하셔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다.
-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 있는 이러한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억압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예언하셨다. 한나와 마리아는 모두 “위대한 반전(the great reversal)”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여기서 반전이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반대로 영적으로 또 현실의 상황에서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것이다.
-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써,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사가 또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Pages 49 & 50 (Blank)

Page 51

제5과

교훈

지혜의 말

잠언 1:20-33, 8:12-9:6, 9:13-18

서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아마도 당신은 부모님이나 조부님, 고모나 삼촌 등 당신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혹은 친구나 멘토와 같은 당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고 통찰력 있는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언은 다루고 있다. 이 과에서 공부할 잠언의 말씀은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고 있다.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충고를 하는 데 쓰였던 남성 중심의 책인 잠언에 성숙한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한 것은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에서 우리는 지혜라는 여성의 몇 가지 성품들을 살펴볼 것이며, 우리를 향한 지혜의 말씀을 또한 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지혜의 상대역인 어리석음과 만날 것이다. 잠언은 어리석음도 또한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 - 데비 (Debbie)

Page 52

관찰

1. 잠언 1:20-33을 읽으시오. 우리에게 지혜가 소개될 때에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녀는 어디서 일하고 있는가?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가?

FYI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공공연히 부르짖고 있는 이 지혜의 모습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와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2. 지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당신의 말로 이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3. 잠언 8:12-9:6의 말씀을 읽으라. 잠언 1장에 묘사된 지혜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무엇을 더 배울 수 있는가?

Page 53

4. 우리는 지혜가 주는 메시지로부터 무엇을 더 배울 수 있는가?

FYI 잠언은 사람들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상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인문학자인 캐롤 폰테인(Carol R. Fontaine)은 여성이 문자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그 여성을 지혜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 지혜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A Feminist Companion to Wisdom Literature*, pp. 26-28)

5. 잠언 9:13-18절을 읽으라. 지혜와 어리석은 자는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특히 잠언 9:1-6의 지혜에 초점을 맞추라.) 또한 지혜와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다른가?

FYI 인문학자인 트렘퍼 롱맨(Tremper Longman)은 잠언이 기록된 당시의 중동 문화에서 식사를 함께한다는 것은 깊고 친밀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혜와 어리석은 자가 이러한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롱맨(Longman)은 또한 당시의 중동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성전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에서 적용된다.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서의 선택은 곧 참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의 선택과 동일하다. (*How to Read Proverbs*, pp 32-34)

- 어떠한 면에서 어리석은 메시지가 우리를 그 어리석음에 이끌리도록 하는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Page 54

이해와 적용

- 지혜가 줄 수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열거해 보시오. 이러한 것들은 왜 가치가 있는가?
- 지혜는 당신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었는가?

Page 55

- 잠언 8:22-31에서, 창조에서의 지혜의 역할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로고스)의 역할과 비슷해 보인다. 예수님 스스로를 지혜로 지칭하신 것(마 11:19; 눅 7:35)과 함께 이러한 지혜와 말씀(로고스)의 유사점은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지혜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게 만들었다. 잠언에 있는 지혜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했을 때, 하나님과 지혜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FYI 신학자인 로랜드 머피(Roland E. Murphy)는 비록 지혜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의해 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지혜를 통해 말씀하신다. (*The Tree of Life*, pp. 138-139)

- 잠언의 말씀은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향한 조언의 책이며, 상당 부분이 결혼과 좋은 아내의 가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혜와 어리석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선택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두 여자의 이미지는 남성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독자로서 당신은 이러한 이미지와 스스로를 어떻게 관련 지을 수 있는가? 만약 그들을 지혜를 주는 남자와 어리석음으로 유혹하는 남자로 생각한다면 좀 더 의미가 있는가?

Page 56

- 지혜가 주는 모든 좋은 면들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음을 택할까?
- 당신의 삶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좀 더 의도적으로 찾을 수 있겠는가?

Page 57

주제별 말씀연구

지혜

신약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은 예수님 스스로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비판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지혜에 속한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 (마 11:19; 눅 7:35) 예수님의 많은 비유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함으로써 (마 7:24-27) 또한 늘 깨어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마 25:1-13; 눅 12:42-48)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남다른 깊이와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마 7:28; 눅 4:22)

바울은 또한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고전 1:18-31)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 (고전 1:26-28)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를 가져다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고전 2:13)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지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많은 축복을 가져온다. (고전 2:10-13)

요약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그분의 자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는 정직과 진리 그리고 바른 판단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가져다 준다.

Page 58 (Blank)

Page 59

제6과

중재

아버가일의 말

사무엘상 25:2-42

서론

“과도를 일으키지 말아라!” “배를 흔들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들은 천사들도 걷기 두려워 하는 곳을 달려 들어간다.” 많은 전통적인 격언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툼을 피하고 어떤 논쟁에라도 휘말려 들어가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좋은 충고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때로는 다툼 가운데로 들어가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비가일은 스스로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음을 깨달았고, 그녀의 조심스러운 중재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 과에서는 아비가일이 어떻게 위험한 분쟁을 다루었으며, 그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과에서 공부할 이야기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다니고 있을 때이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고 (삼상 16) 질투하는 사울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 다녔다. 다윗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의 기름부음에 대한 말들이 나라 전체로 퍼져나갔을 것이다. 다윗과 그의 군대에 대한 명성이 자자해졌다. - 데비 (Debbie)

Page 60

관찰

1. 사무엘상 25:2-13을 읽으시오. 나발과 그의 아내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2. 다윗은 나발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FYI 표면적으로 다윗의 요청은 보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뜯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 군대가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양털을 깎는 때는 축제와 같아서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다윗의 요청은 요구나 위협이 아니었다. 다윗이 보낸 사환들은 어느 일정한 양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발에게 베푸는 양을 결정하도록 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나발에게 승리의 종인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도록 했다.

3. 다윗의 요청에 대한 나발의 반응은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는 평판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Page 61

4. 사무엘상 25:14-35을 읽으시오. 다윗과 나발의 대립에서 무고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5. 이 대립을 평화롭게 끝내기 위해서 아비가일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FYI 아비가일의 표현 중에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29절)라는 말은 귀중한 보석이나 돈을 보자기에 싸서 안전하게 운반하는 당시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을 물매로 던졌다는 표현에서 그녀가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6. 사무엘상 25:36-42을 읽으시오. 여기서 다윗은 나발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이 다윗과 아비가일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Page 62

이해와 적용

7. 다윗의 요청에 대한 나발의 반응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부추겼나? 나발의 대답을 들은 다윗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FYI 신학자인 앨리스 매튜스(Alice Mathews)는 나발은 다윗을 두 가지 면에서 모욕을 했다고 말한다. 첫째, 그는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일꾼들을 도와준 것에 대한 은혜를 갚기를 거절했다. 둘째, 예의를 차리는 문화와는 반대로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의 성품을 깎아 내렸다. (*A Woman God Can Lead*, p. 103)

8. 왜 종들은 아비가일에게로 돌아왔는가? 이 위기를 다루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비가일의 성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FYI 여성으로써 아비가일은 다윗의 군대에게 위협을 주지 않고 다가갈 수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다윗이 무고한 여자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에게 다가가서 나발의 어리석음에 대한 책임을 졌을 때 다윗은 풀어졌다. (24절)

아비가일은 남편의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다윗을 정직하게 대했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바램이 (page 63) 하나님께 신실하도록 하였다. 그녀는 또한 남편에게 정직했으며 가장 적절한 때를 골라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남편에게 알렸다.

비록 아비가일은 남편의 바램과 다르게 행동했지만, 다윗은 그녀의 행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다. 앨리스 매튜스는 아비가일이 “그녀의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최선의” 행동을 했다고 말한다. 매튜스는 또한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아비가일은 절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또는 아내로써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A Woman God Can Lead*, p. 106)

9. 아비가일의 말이 어떻게 다윗이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는가? 그의 분노와 복수심을 단번에 버린 다윗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10. 아비가일과 그녀의 가족을 만나게 된 다윗은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FYI 이 에피소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죽이지 않았던 두 번의 사건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위치해 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은 그의 손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께 그의 미래를 맡길 뿐이었다.

Page 64

11. 나발의 종들은 나발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가져왔다. 그녀는 지혜롭다는 평판을 받았고, 집안의 일을 경영하는 데 좀 더 권위를 가졌다. 당신의 고민을 누군가와 나누었을 때, 지혜로운 조언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누시오. 당신의 삶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은 있는가?

12. 아비가일이 갈등을 다루는 현명한 방법들을 열거해 보라. 아비가일의 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당신이 갈등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만한 교훈은 무엇인가?

Page 65

주제별 말씀연구

갈등을 다루는 법

예수님과 바울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갈등과 분쟁을 다루어야 하는지 많은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라고 가르치셨다. (마 5:21-22) 또한 그들이 다투게 되었을 때에 화해를 위한 행동을 빨리 취할 것을 말씀하셨다. (마 5:23-26) 예수님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제시하셨다. 그의 가르침은 권고를 당하는 사람의 인격과 권고를 하는 사람의 안전과 평판을 모두 보호한다. (마 18:15-17)

바울은 죄를 짓고 있는 교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단호히 그를 대하라고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있다. (고전 5:1-5) 바울은 또한 그들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기보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우라고 그들을 간곡히 타이른다. (고전 6:1-8)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과 사랑과 친절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가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반복해서 상기시키고 있다. (갈 6:1-5; 엡 4:1-6, 5:21; 빌 4:2-7; 골 3:12-17)

요약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을 중재하라고 부르시는 상황과 때가 있다.
- 정직과 겸손 그리고 적절한 때는 폭력적인 상황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 다른 믿는 자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바램을 상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리 스스로가 갈등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Page 66 (Blank)

Page 67

제7과

격려

엘리사벳의 말

누가복음 1:5-45

서론

나의 첫 번째 임신은 유산으로 끝이 났다. 내 남편과 나는 너무 어렸고, 당시 집과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외로웠고, 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계획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여성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다. 그 여성들은 나를 사랑했고, 나의 아픔을 들어주었고, 그들의 삶을 나눔으로써 나를 격려해 주었다. 그들은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로부터 그들의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어려움에 배우는 것들은 미래에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양분이 된다.

이 과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 사이에 있었던 격려와 도움의 관계를 보게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의 나이와 상황은 다를지라도, 이 두 여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힘과 평안함을 주게 된다.
- 데비 (Debbie)

Page 68

관찰

1. 누가복음 1:5-25을 읽으시오.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당신의 말로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해 보자.

FYI 사가랴가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가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기회였다. 신학자인 하워드 마셜(*I. Howard Marshall*)에 따르면 사가랴가 증표를 구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한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증표를 구했었다. (창 15:8; 룰 3:11, 12; 사 6:36, 37) (*Commentary on Luke, p. 60*) 하지만 사가랴의 질문에서 그가 가브리엘 천사에 대한 신뢰도와 진실성을 의심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2. 이 이야기로부터 엘리사벳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3. 누가복음 1:26-38을 읽으시오. 이 이야기에서 마리아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예'라고 대답할 때에 그녀가 가지게 되는 희생과 위험은 무엇인가?

Page 69

FYI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 비슷하지만 더 강한 구속력이 있었다. 약혼식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과 함께 성대한 잔치가 치러졌으나, 정작 결혼식 예식이 있을 후 신방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났다. 당시 소녀들은 15세가 되기 전에 약혼을 했다.

4. 누가복음 1:39-45을 읽으시오. 마리아는 어디에 갔는가? 그녀는 어떻게 환대를 받았는가?

이해와 적용

5. 마리아는 왜 엘리사벳을 보고 싶어 했을까?

FYI 마리아가 그녀의 사촌을 만나려고 했던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39절에 나타난 '산골'은 거칠고 위험한 지역이었다. 그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절벽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사막이었고, 탈주자와 산적들의 피난처였다.

Page 70

6.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상황이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또 어떤 면에서 다른가?

FYI 신학자인 바실리키 림베리스(Vasiliki Limberis)는 엘리사벳이 결혼생활을 시작한 후 거의 대부분을 아이가 없는 여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문화에서 불임은 하나님의 총애를 잃었음을 뜻했다. 메시아를 임신할 것을 받아들인 마리아는 미혼모라는 또 다른 사회적인 오명을 대하기 직전이었다. ("Mary 1, *Women in Scripture*, pp. 116, 117)

7. 어떤 말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환영했는가? 41절에 따르면 그녀의 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엘리사벳의 말은 예언이라는 특별한 범주에 속한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에 어떤 영감을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가?
8. 엘리사벳이 표현한 축복의 말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말들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었겠는가?

Page 71

FYI 스티븐 사역(Stephen Ministries)의 창립자인 케니스 하우크(Kenneth Haug)는 “축도(혹은 축복)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살피고 있으며 당신의 안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축도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기억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큰 힘을 실어주고 평안을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때문이다.” (Christian Caregiving, p. 124)

9.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는 “나”로 시작되는 문장을 사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잘 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열심히 한 일에 나는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그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로 시작되는 문장(“I” statements)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10.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우리가 감사한 것과 감탄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격려하면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Page 72

11. 엘리사벳은 축복으로, 마리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또 구체적인 말로 마리아를 격려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위로했던 경험을 나누어 보라. 축복이나,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말이나, 혹은 구체적인 말로 누군가를 위로했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당신의 처한 현재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겠는가?
12. 당신의 교회나 가족 혹은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주라는 대상이 있는가?

FYI 위로의 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격려의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전화나 이메일로 위로의 말을 전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실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섬기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라.

Page 73

주제별 말씀연구

격려

잠언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들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 커뮤니티를 세울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잠 11:11; 12:14, 18, 25; 15:1, 4, 23,

28, 30; 16:24)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거의 대부분 축도나 축복으로 시작하거나 끝을 맺는다. 그는 자유롭게 사랑의 감정을 나누고, 다른 교회들의 좋은 점들을 칭찬한다. (엡 1:15, 16; 빌 1:3-8; 골 1:3-8) 그는 또한 그의 독자들이 그들의 말로 서로 격려하고 도울 것을 간곡히 타이르고 있다. (엡 4:29; 살전 5:11)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의 고통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고후 1:3-7) 디도에게 전하는 서신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나이가 많은 여성들의 의무는 젊은 여성들과 가르침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딤후 2:3-5) 야고보는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을 경고하면서 신중하게 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약 3)

요약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위로 받고 또 위로 할 수 있는 관계로 부르셨다.
-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친구를 도와줄 때 적당한 말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 우리는 축복의 말과 그들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과 구체적인 말들을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Page 74 (Blank)

Page 75

제8과

훈련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

누가복음 10:38-42 그리고 요한복음 12:1-8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대중 사역에서의 최종 가치는 결국 그 분과 하나가 되는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의 깊이로 결정이 된다.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 6일.)

서론

저녁 8시,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의 세 명의 자녀들(5, 4, 2 살)과 함께 집으로 막 돌아왔을 때였다. 전화가 울렸다. 우리 교회의 담임목사인 내 남편의 전화였다. 심각한 밤에 걸린 것으로 판명된 한 여성을 위한 치유예배에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전화였다. 그녀의 집에 15분 후에 모이기로 했다고 한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라며 나는 소리질렀다. “애들은 어떡하고요? 난 너무 지쳤어요. 교회에 오후 3시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위원회 모임이 있었고, 저녁 준비를 도왔고, 그리고 중고등부 성경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빌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여기 오지 않아도 돼요. 난 단지 당신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page 76)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주님을 위한 사역이 어느새 기쁨의 반응이 아닌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

크리스천 여성들은 바쁜 여성들이다.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뜨거운 열심에서, 우리는 스스로 마음이 산만하고, 불안하며, 근심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마르다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마르다처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기쁨이 아닌 실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는 훈련의 성경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여인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 리 (Leigh)

FYI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마일 떨어진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면 이 가정을 들르곤 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오빠와 살았던 것을 봐서, 이 이야기가 전해졌을 당시에 둘 다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누가복음 10:38-42을 읽으시오.

관찰

1. 당신의 말로 누가복음 10:38-42을 다시 적으시오. 마르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오. 그녀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Page 77

2. 마르다를 설명할 수 있는 세 단어는 무엇인가? 다른 성경번역본들에서는 어떤 단어들 썼는가?
3. 마리아는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까지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불평은 마리아가 이제는 그녀를 “떠났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39절)

FYI 유대인들의 문화는 성에 대한 역할분담이 분명하다. 랍비 혹은 스승의 발 앞에 앉는 것은 당신이 그의 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남자들만이 랍비 밑에서 공부하고 유대인들의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격려했다. 여성들의 활동은 요리와 바느질, 그리고 다른 집안의 일들로 제한되었다.

요한복음 12:1-8을 읽으시오.

- 한 주되 되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친구들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으로 돌아왔다.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보라. 왜 이 가족이 예수님을 위해서 저녁을 대접하게 되었을까?

Page 78

- 다시 요한복음 12:1-8로 돌아오라. 나사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마리아의 행동에 유다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해와 적용

FYI 누가복음 10:40과 요한복음 12:2에서 마르다의 섬김에 대한 그리스어 원어는 디아코네오(*diakoneo*)이다. 이 단어는 사역을 뜻하고 이 단어에서부터 영어의 “*deacon*”(집사)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 같은 단어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설명할 때 쓰였다. 마태복음 20:28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diakoneo*)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써 우리 모두는 디아코네오로 부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섬김 자체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누가복음 10:40을 다시 읽으시오. 본문 말씀에서 마르다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섬김에서 마르다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졌는가? 2번 문제에서 대한 당신의 답을 다시 보시오. 이 세 단어가 당신에게 적용되었던 상황을 설명해 보시오.

Page 79

- 마리아는 섬김을 멈추었다. 그녀는 왜 부엌에 있는 마르다를 떠났는가? 무엇이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것이 왜 제자의 근본적인 성품인가?
-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두 여인을 보게 된다. 한 여인은 봉사와 분주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했고, 다른 한 여인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 당신은 언제 마르다처럼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가? 당신은 언제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평가해 봐야 하지 않을까?

Page 80

10. 요한복음 12:3-7을 다시 읽으시오. 나사로와 “제자들”은 이 저녁식사에 모두 모였다. 마르다도 그 곳에 섬기면서 있다. 마리아가 한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곧 죽을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녀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된 것을 알았을까?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제자도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1.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제자도는 무엇인가?
12. 이제까지 당신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과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다. 제자로써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가지기를 원하는가?

Page 81

주제별 말씀연구

제자도 (discipleship)

오늘날의 크리스천 여성들을 묘사하는 단어를 하나 고른다면, 그것은 “지쳤다(weary)”라는 단어일 것이다. 봉사와 사역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치게 하고, 예수님과 보내는 개인적인 시간은 사라져 버렸다. 갈라디아서 6:9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님과의 시간을 희생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지쳐버린다.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그 분과의 깊은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15:4-7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비유로 드시면서, 어떻게 그 분과의 관계가 그 분을 섬기는 우리의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려주고 계신다. 가지(우리)는 포도나무(예수님)에 붙어있을 때에만 열매(우리의 섬김의 결과)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의 제자도의 결과이다.

요약

- 예수님은 여성들이 그의 발 앞에 앉도록 격려하심으로 당시 문화적인 장벽을 허물었다.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사역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Page 82 (Blank)

Page 83

제9과

전도

막달라 마리아의 딸

요한복음 20:1-18

서론

신학원을 졸업하고 나의 남편은 테네시 주의 동남쪽에 위치한 마운틴탑(Mountain-top) 커뮤니티의 한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세대 커뮤니티였고, 교회의 영적인 뿌리는 깊었으며, 위대한 크리스천 전통을 그들의 자녀와 손자와 손녀에게 전하는 곳이었다. 우리는 8년 동안 이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교회와 친구들, 그리고 가정과 커뮤니티를 사랑했다. 우리의 세 자녀들은 모두 여기서 태어났다. 나는 그곳을 떠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비록 그 다음 부르심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나는 이전의 삶에 너무 젖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삿짐으로 가득 찬 미니밴을 몰고 산을 내려올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우리는 남쪽을 향했다. 나의 남편이 현재 담임목사로 섬기는 교회가 있는 플로리다로 내려왔다. 새로운 커뮤니티는 달랐다. 아름다운 바닷가와 웅장한 종려나무들, 그리고 1년 내내 골프를 칠 수 있었다. 이 곳의 많은 커뮤니티는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았다. 이 새로운 곳에서 필요한 것은 제자훈련이 아니라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되었다. 나는 예전의 익숙한 생활이 그리웠다.

Page 84

하나님은 부드럽지만 지속적으로 예전 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가족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졌다. 플로리다에서 5년을 지내는 동안 경험하게 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다. 내 남편은 유아세례를 하는 숫자만큼이나 어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배고파 있었고, 복음의 좋은 소식에 반응했던 것이다.

내가 과거에만 집착해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을 잃어버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주님 저에게 과거를 “놓으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서” “증거하는” 축복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리 (Leigh)

요한복음 20:1-18을 읽으시오.

관찰

FYI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창녀였고,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가 많은” 여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는 증거가 없다. 마리아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곳은 누가복음 8:2-3이다. 예수님은 그녀를 귀신 들린 것에서부터 치유해 주셨다. 요안나, 수산나와 함께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 제자들은 도망을 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사건의 충성된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다.

Page 85

1. 주일 아침, 무덤으로 간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그녀는 무엇을 보았는가? 그녀는 무엇을 했는가? 그녀는 무엇을 말했는가?

FYI 요한복음 19:31-42을 읽으시오. 십자가 사건은 금요일에 일어났다. 요한복음 19:31은 우리에게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밤이 지나도록 십자가에 시체를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을 말해준다. (신 21:22-23 참고) 그뿐 아니라 금요일(안식일의 시작)에 해가 진 후에 일을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었다. 따라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서부터 예수님의 몸을 서둘러 내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를 무덤에 안치시켰다. 율법은 또한 토요일에 무덤에 가는 것을 금지했다.

2.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3. 무덤으로 다시 돌아간 마리아는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다. 그녀의 눈물 사이로 보게 된 것은 무엇인가?

Page 86

4. 예수님이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마리아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16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마리아는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요 20:16-17)
5. 17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세가지는 무엇인가?
6. 제자들에게 한 마리아의 첫 번째 말은 무엇인가? (요 20:18)

이해와 적용

FYI 누가복음 8:2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악귀에서부터 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지만, 성경의 다른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 대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귀신들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귀신들린 자들이 가졌던 육체적인 증상에는 말을 잃어버림, 피성을 지름, 발작증세, 입에 거품을 뿜, 잠을 자지 않음, 경련 등이 있다. 일곱 귀신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던 마리아는 육체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혼란, 사회적인 격리, 그리고 영적인 패배 가운데 살았다. (page 87)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으로 그녀는 완전히 나음을 얻었다. 그 분이 그녀의 삶을 바꾸셨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자유롭게 하셨다.

마리아는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랐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기다렸다. 마리아는 아리마대 요셉을 따랐고 (눅 23:55)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는 주일 아침 “일찍이” (율법이 허락하는 가장 이른 시간에) 무덤으로 돌아갔다. 그리스어로 일찍이는 프리오(prio)이며 마리아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무덤으로 갔다.

7. 귀신이 들렸을 때의 마리아의 삶과 예수님의 제자로써의 그녀의 삶을 비교해 보라.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녀의 삶이 바뀌었는가?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때부터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보시오.
8.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당시 시간과 장소, 그녀의 감정적인 상태, 그녀의 자세, 그리고 그녀가 찾고 있던 것 등을 생각해 보자.)
9.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는 그 분을 알아보았다. 이사야 43:1과 요한복음 10:2-5을 읽으시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비인격적이고,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견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Page 88

10. 17절에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을 읽게 된다. 그녀는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을까? 왜 그녀는 예수님을 붙들었을까?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 분을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
11.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본 사람이었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를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었다. 이러한 특권은 베드로나 요한 혹은 다른 남자 제자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다. 종교적 율법이 여자들을 소유물로 취급하고 사회의 법이 그들의 증거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첫 번째 전도자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왜 효과적인 전도자인가? 오늘날에는 무엇이 효과적인 전도자를 만드는가?

12. 전도는 “가는 것”과 “전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하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는 것”과 “전하는 것” 중 무엇이 더 힘든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에서 복음을 나누도록 부르시는가? 또 누구에게?

주제별 말씀연구

전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15)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하늘에 메시지를 적으시거나,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창조하시거나, 혹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한 도구로 남자와 여자를 쓰시기로 결정하셨다.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되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막 3:13-14)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6:15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다.

전도는 명령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의 저서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전도의 마스터 플랜)>에서 로버트 콜맨(Robert Coleman)은 이렇게 말한다. “전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존재하며 행동하도록 하는 심장박동과 같은 소명이다.” (Coleman, page 92) 로마서 10:14에서 바울은 아주 뛰어난 질문을 한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도구이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본 주님을 순종함으로 “가서” “전해야” 한다.

- 예수 그리스도는 삶을 변화시킨다.
-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신다. 우리의 과거나 사회적 위치가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전하는 사역을 막을 수 없다.

Page 91

제10과

부정직함

삽비라의 딸

사도행전 4:32-5:11

서론

먼 옛날에,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식사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부모와 6명의 자녀들이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치 캐서롤이 식탁 위에 놓이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접시가 아이들 앞에 놓이자 불평이 시작되었다. “에휴, 왜 또 이걸 먹어야 되요?” 라고 1번 아이가 아우성쳤다. “우리 피자 시켜 먹어요. 이건 싫어요.” 2번 아이가 소리질렀다. 엄마와 아빠는 더 이상 불평을 들을 수가 없었다. 1번과 2번 아이는 그날 저녁 디저트를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저녁식사가 끝나고 식탁이 깨끗해지자, 엄마는 부엌에서부터 보기에도 아름다운 홈메이드 3단 2중 브라우니 퍼지 케이크를 가지고 나왔다. “또 저녁식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싶은 사람 있니?”라고 엄마는 물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배운다.

삽비라와 그녀의 남편 아나니아의 사건은 교회가 형성되는 초기에 발생했다.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때에, (page 92)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님과 서로에게 정직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진실됨을 요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실제적인 계기가 되었다. - 리 (Leigh)

사도행전 4:32-5:11을 읽으시오.

관찰

1. 사도행전 4:32-37을 다시 읽으시오. 초대교회를 설명해 보시오. 관용에 대한 모델로 제시된 사람은 누구인가?
2. 아나니아의 헌납은 교회의 다른 사람들의 헌납과 어떻게 다른가? (4:34-35과 5:2을 비교하십시오.) 아나니아 혼자서 취한 행동인가?

3. 초대교회를 대적해서 일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3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려고 했던 자는 누구인가? (4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로 (page 93) 속이려고 했던 이는 누구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5절)
4. 남편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한 삽비라가 베드로에게로 왔다. 베드로는 어떤 질문을 했는가? (8절) 베드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는가?
5. 삽비라는 어떻게 답을 했는가? (8절) 그녀의 거짓말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10절) 삽비라가 속이고자 했던 이가 누구라고 베드로는 말하는가? (9절)

FYI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그들이 헌납한 돈의 액수와는 상관이 없다. 그들은 땅을 팔아야 할 의무도 그들이 판 값을 다 내어야 할 의무도 없었다. 그들의 죄는 속이는 것이었다.

Page 94

6.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1절과 14절)

이해와 적용

7. 사도행전 4:32-37에서 초기 성도들 간에 관용의 정신을 볼 수 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담대한 사도들로 바꾼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했던 적이 있는가?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신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변화에 저항한 적이 있는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Page 95

8.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려는 계획을 짜고 있을 때에 오고 갔을 만한 대화를 상상해 보라. 그들은 어떤 말들을 했을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화 했을까?
9. 당신의 생각으로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정직한 것을 선택했을까?

FYI 많은 사람들에게 삽비라와 그녀의 남편인 아나니아의 이야기는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성경본문 가운데 하나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성품마저 의문하게 만든다. 요한일서 4:8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심으로 나타내셨다. (요 3:16)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다. (레 11:44)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정의로운 심판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10.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헌납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가? 당신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려고 했던 때를 생각해 보자. 그 당시를 되돌아 볼 때 당신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11. 잠언 12:13-22을 읽으라. 부정직함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진실함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

Page 97

12. 잠언 9:10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잠언의 말씀이 당신에게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당신을 더욱 가까워지도록 했던 경험이 있는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인가?

주제별 말씀 연구

진실함

잠언 6:16-19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곱 가지들을 열거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부정직함은 하나님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6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자체가 이러한 진리가 현실화된 분이였다. 로마서 8:29에서 바울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할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이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을 믿는 자들이 진리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진리의 영”으로 언급하고 계신다. (요16:13)

Page 98

성경은 믿는 자들이 가지는 어떠한 모임이든지 반드시 가져야 할 특성은 “진실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의 연합은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엡4:25)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엡4:15) 사랑은 그것이 진리와 함께 있을 때 기뻐한다.
(고전 13:6)

요약

-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아 그 수익의 일부분을 가져 왔다.
-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판 값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교회를 속이려고 했다.
- 진리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정직함을 참지 않으셨다.
- 교회가 하나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진실함을 훈련해야만 한다.

Page 99 & 100 (Blank)

Page 101

성경공부 인도자들을 위한 안내서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룹 토의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각 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한 권씩 가지고, 시간을 할애해서 미리 공부를 한 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경공부 리더들은 주로 토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토의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성경공부를 인도하기 위한 준비

- 기도로 성경공부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과를 통해서 당신의 그룹에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고 구합니다.
- 교재에 있는 각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의 교재나 따로 준비한 노트에 모두 적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적용하는 예를 묻는 질문에는, 그에 대한 답으로 몇 가지 예들을 미리 준비해서 대화를 이끄는 촉진제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본인 스스로 질문을 고쳐보도록 합니다.
-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생기는 모든 질문들을 적어봅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보거나, 교회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니다. 참고문헌은 이에 대한 좋은 자료들을 알려줍니다. 또한 주석성경이나 일반적인 주석서는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어떤 학생들에게도 좋은 투자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추천할만한 주석서입니다.

New Bible Commentary: 21st Century Edition, ...

[NO TRANSLATION NEEDED, the same as the original]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Old Testament, ...

[NO TRANSLATION NEEDED, the same as the original]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New Testament, ...

[NO TRANSLATION NEEDED, the same as the original]

New International Bible Commentary, ...

[NO TRANSLATION NEEDED, the same as the original]

- 각 과의 마지막에 있는 요약 부분은 그 과의 요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공부 전에 요약을 다시 한 번 보시는 것은 대화를 이끌면서 요점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준비는 당신의 그룹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성경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 과에서 중요한 질문들이 무엇인지, 또 시간이 없을 경우에 하지 않아도 될 질문들은 무엇인지 결정해 놓아야 합니다.
- 여러 번역본의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공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이상 개역개정판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 만약 당신의 그룹이 대화 형식의 성경공부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곳의 질문들을 강의를 위한 개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것은 강의로 하되 개인적인 적용 부분은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본인에 관한 것이나 개인적인 관찰은 성경지식에 관한 것보다 나누기가 쉽습니다.
- 만약 누군가가 성경공부의 시작이나 끝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공부 전에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이끌기

성경공부의 인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위한 지침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공부의 첫째 모임에서 그 그룹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대화들은 기밀이 유지될 것을 약속하는 것은 많은 경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경공부반의 반원이 다른 반원의 허락이 없이는 성경공부 그룹 밖에서 다른 반원의 개인적인 사항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밀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을 나누는 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대화를 장악하려고 하는 반원에 대한 문제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반원들에게 대화식 성경공부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page 103) 인도자는 대화를 이끌면서 평소보다 적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 과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다음은 기도의 예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말씀과 그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특권과 당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대화를 이끌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자진해서 읽도록 하십시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성경의 지명과 인물에 대한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대화에서 질문하기

- 질문 후에 따라오는 침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모으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침묵이 너무 길어지면 질문을 바꾸어 말하십시오.
- 사람들에게 답을 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주지 마십시오. 하지만 대답하기를 원하는 반응은 호명하여 기회를 줍니다.
- 한 사람이 대화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이 빨리 이야기를 끝낼 수 있도록 하거나, 만약 한 사람이 계속해서 대답을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강하고 자신있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그룹이 성경공부의 요점에 맞출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옆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각 과의 요점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꾸어 말하거나, 그 과의 요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거나,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성경공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만약 그 과에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었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공부시간이 끝난 이후에 혹은 다른 시간에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 각각의 대답에 지지를 보내십시오. “좋은 지적입니다” 혹은 “좋은 생각이네요” 등의 코멘트는 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한 말에 동의를 할 수 없다면 “그것 참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본문 어디에서 그러한 점을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부드럽게 하면 됩니다.
-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을 때는 그들의 코멘트를 바꾸어 말하거나, 그들이 이리이러한 뜻으로 말을 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의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또 그들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당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라고 그룹에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거기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가서 묻거나 혹은 교회 도서관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답을 찾습니다.

기도로 성경공부를 끝내십시오. 이 때 반원들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룹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기를 원하는 반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 두세 명이 짝을 지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하거나, 성경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정해놓은 사람이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Page 105

참고 문헌 (Bibliography)

제1과

Walter Brueggemann, *Genesis: Interpretation: The Bible Commentary for Preaching and Teaching*, James Luther Mays (ed.), John Knox Press, Atlanta, 1982. Anne Graham Lotz, *God's Story*, Word Publishing, Nashville, 1997. Sue and Larry Richards, *Every Woman in the Bible*, Thomas Nelson, Nashville, 1999.

제2과

Arthur Cundall and Leon Morris, *Judges, Ruth*, InterVarsity Press, Downers Grove, Illinois, 1977. Tikva Frymer-Kensky, “Deborah 2,” *Women in Scripture*, Carol Meyers (gen. ed.), Houghton/Mifflin, 2000. _____, “Jael,” *Women in Scripture*, Carol Meyer

(ed.), Houghton/Mifflin, 2000. _____, "Mother of Sisera," *Women in Scripture*, Carol Meyers, "Girls as Booty," *Women in Scripture*, Carol Meyers (gen. ed.), Houghton/Mifflin, 2000.

제 3과

David Atkinson, *The Message of Ruth*, InterVarsity Press, Downers Grove, Illinois, 1983.
Sue and Larry Richards, *Every Woman in the Bible*, Thomas Nelson, Nashville, 1999.

제 4과

Mary J. Evans, *1 and 2 Samuel*, Hendrickson Publishing, 2000. Lillian Klein, "Hannah," *Women in Scripture*, Carol Meyers (gen. ed.), Houghton/Mifflin, 2000. Vasiliki Limberis, "Mary," *Women in Scripture*, Carol Meyers, (gen. ed.), Houghton/Mifflin, 2000.

Page 106

제 5과

Claudia Camp, "Woman Wisdom," *Women in Scripture*, Carol Meyers (gen. ed.), Houghton/Mifflin, 2000, Carol R. Fontaine, "Woman Folly (Foolish Woman)," *Women in Scripture*, Carol Meyers, (gen. ed.), Houghton/Mifflin, 2000. _____, "Women in the World of Wisdom," *A Feminist Companion to Wisdom Literature*, Athalya Brenner (e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Tremper Longman, *How to Read Proverbs*, InterVarsity Press, 2002. Roland E. Murphy, *The Tree of Life: An Exploration of Biblical Wisdom Literature*, Doubleday, 1990.

제 6과

Joyce G. Baldwin, *1 and 2 Samuel: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InterVarsity Press, 1988. Kenneth L. Chafin, *1 and 2 Samuel, Communicator's Commentary*, Lloyd J. Ogilvie, *1 and 2 Samuel: A Commentary*, Paternoster Press, Zondervan, 1986. Alice Mathews, *A Woman God Can Lead*, Discovery House, 1998.

제 7과

Kenneth C. Haugk, *Christian Caregiving-A Way of Life*,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Vasiliki Limberis, "Elizabeth," *Women in Scripture*, Carol Meyers (gen. ed.), Houghton/Mifflin Co., 2000. _____, "Mary 1," *Women in Scripture*, Carol Meyers (gen. ed.), Houghton/Mifflin Co., 2000. Howard Marshall, *Commentary on Luke*, Paternoster Press, Ltd., 1978. Study notes from *The Word in Life Bible*, Thomas Nelson, Nashville, 1993, 1996, 1998.

Page 107

제 8과

Oswald Chambers, *My Utmost For His Highest*, Discovery House, Nashville, 1992. Floyd V. Filson, *John: The Layman's Bible Commentary*, Balmer H. Kelly (ed.), John Knox Press, Richmond, 1963. Donald G. Miller, *Luke: The Layman's Bible Commentary*, Balmer H. Kelly (ed.), John Knox Press, Richmond, 1959. Sue and Larry Richards, *Every Woman in the Bible*, Thomas Nelson, Nashville, 1999.

제9과

William Barclay, *The Gospel of John: Volume 2*, The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1975. Robert E. Coleman,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Fleming H. Revell Company, Old Tappan, New Jersey, 1963. Liz Curtis Higgs, *Mad Mary*, Waterbrook Press, Colorado Springs, 2001. S.E. McClelland, "Demons,"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Walter A. Elwell (ed.), Baker House Books, Grand Rapids, 1984. Sue and Larry Richards, *Every Woman in the Bible*, Thomas Nelson, Nashville, 1999.

제10과

Sue and Larry Richards, *Every Woman in the Bible*, Thomas Nelson, Nashville, 1999. John R. W. Strott, *The Bible Speaks Today: The Message of Acts*, InterVarsity Press, Downers Grove, Illinois, 1990.

Page 108 (Blank)

Page 109

평가를 위한 양식 (Evaluation Form)

장로교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NPWL)는 여러분의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평가서를 작성하신 후에 성경공부 인도자에게 내어주시면, 인도자가 NPWL로 당신의 평가서를 보낼 것입니다.

참가자들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성경공부의 질문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2. 어떤 종류의 질문이 더 도움이 되었습니까?
3. 이 성경공부가 당신의 신앙의 여정에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경공부 인도자들은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Page 110

성경공부 인도자들을 위한 질문:

1. 당신이 인도한 성경공부 그룹의 성격은 어떠했습니까?

2. 전체 반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3. 모든 반원들이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4.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습니까?
5. 각 과에 주어진 성경공부 시간은 적당했습니까? 시간을 조절해야 했다면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6. 성경공부 교재의 질문들이 좋은 대화를 이끌어 냈습니까?
7. 인도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다른 유익한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8. 더 나은 성경공부 교재를 위해서 다른 코멘트나 제안이 있다면 꼭 나누어 주십시오.

평가서를 밑에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PWL, 1030 W. Magee Road, Tucson, AZ 85704